11년 경력, 변호사님들이 함께하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기독일보

VISION 2035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신뢰받는
에너지 화학기업 S-OIL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39-8119 제 3142호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K-컬처가 한국 교회에 던진 질문

한국기독교학술원, 2일 ‘하나님 나라와 문화’ 공개 세미나
이길용 교수, 교회의 자기 비움 강조
강진구 교수, 기독교 영화학 정립 제안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손인웅 목사)이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하나님 나라와 문화’를 주제로 제67회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발제에 나선 이길용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사진〉는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치데스터의 렌즈로 본 K-컬처와 한국 교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종교를 경전과 교리 중심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넘어, 대중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결속과 종교적 기능에 주목했다.

그는 종교학자 데이비드 치데스터의 이론을 바탕으로 방탄소년단(BTS)과 팬덤 아미(ARMY)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 개신교회의 현실과 비교했다. 대중문화가 제공하는 연대와 치유의 경험을 살피는 동시에 교회가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 교수는 1966년 비틀스 멤버 존 레넌의 발언을 전통 종교와 대중문화의 관계 변화를 드러낸 사건으로 언급했다. 이어 60년이 지난 오늘날 BTS와 아미의 상호작용에서는 대중문화가 ‘대안적 영성’으로 기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치데스터가 제시한 ‘교회·물신·포틀래치’라는 세 가지 분석 모델에 연결했다. 공연장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는 일상과 구별되는 성소처럼 기능하고, 포토카드와 응원봉은 스타와의 연결을 매개하는 성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었다.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한 팬들의 자발적 소비와 세계 각지에서 이뤄지는 기부 활동은 포틀래치 모델과 연결해 해석했다. 그는 상업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라도 그 안에서 경험하는 연대와 치유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한다며, 이를 ‘진짜 같은 가짜’의 진정성으로 설명했다.



제67회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공개세미나
주제 : 하나님 나라와 문화

제67회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 세미나가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반면 한국 교회는 구역·셀 모임, 통성기도와 부흥회, 순례, 안수와 헌금 등 몸과 감각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다양한 실천을 이어왔으면서도 내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교회 중심의 폐쇄성과 세속적 흥행 방식의 모방, 물질적 번영을 앞세우는 신앙이 청년 세대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한국 교회가 대중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흥행 기법만 빌리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문화를 세속적 타락으로만 규정하는 접근과 교회 성장의 도구로만 활용하려는 접근 모두를 경계했다.

그는 개교회의 양적 성장과 외형 유지에 집중해 온 자원을 지역사회와 세계 곳곳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자기 비움’과 ‘포틀래치적 헌신’으로 설명하며, 교회가 이러한 실천을 통해 “참된 ‘성스러움의 자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강진구 고신대학교 교수는 ‘우리가 기독교 영화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프랜시스 셰퍼의 기독교 변증론을 토대로 영화에 담긴 세계관을 분석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작품 제작까지 포괄하는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계가 영화를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볼 영화와 보지 않을 영화를 구분하는 차원을 넘어 비평과 창작을 아우르는 기독교 영화학을 정립하고, 목회자와 평신도 전문가가 동역자로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현대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이중 언어(bilingual)’ 능력을 꼽았다.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비그리스도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문제를 들었다. 영화 역시 기독교적 메시지의 유무나 찬반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보다 작품이 전하려는 사상과 시대적 배경, 예술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세상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작품 자체가 말하려는 작가의 사상, 시대 상황, 예술성 등을 먼저 객관적으로 음미하는 ‘객관적 비평’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품을 충분히 이해한 뒤 기독교적 관점에서 대화하고 비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영화가 예술이면서 산업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수익을 위해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상업주의에 영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앙을 전하는 일에는 지적인 설명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기독교 영화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독교 대학 내 독립 전공이나 연계 전공 개설을 제시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화를 비평하고 창작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전공자들이 교회 현장에서 미디어 전문 교역자(Media Pastor)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교육과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화 연구와 창작 교육이 교회의 문화·미디어 사역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날 발제에 대한 논평은 정미현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노형구 기자

“AI 시대 교회, 단순 ‘사용자’ 아닌 ‘콘텐츠 생산자’ 돼야”

한국교회정보센타, ‘AI와 함께하는 미래목회’ 주제로 2027 목회 계획 세미나 개최

한국교회정보센타(대표 김항안 목사)가 2일 군포제일교회(담임 권태진 목사)에서 ‘AI와 함께하는 미래목회’를 주제로 2027 목회 계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항안 목사를 비롯해 정철우 목사(한우리선교교회), 권태진 목사, 선종욱 목사(푸른초장교회)가 강사로 나서 AI 시대의 목회 방향과 선교전략, 지역사회 섬김과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첫 강연을 맡은 김항안 목사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교회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사역을 설계하는 교회로’를 주제로, AI 사용 여부보다 교회 고유의 목회적 자산을 발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일반화될수록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보다 무엇을 콘텐츠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교회는 단순한 AI 소비자가 아니라 거룩한 콘텐츠의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설교와 간증, 신앙교육 자료, 선교 경험, 지역사회 이야기 등을 축적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7년 AI 목회는 기술 도입보다 목회자와 교회의 지식·경험을 미래 목회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목회자가 콘텐츠의 기획·생산·검증·유통을 책임지고, 검증을 마친 자료만 교회의 공식 콘텐츠로 사용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미래 목회의 비전은 ‘AI를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 복음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며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목회전략과 적용’을 주제로 강연한 정철우 목사는 성경 중심의 설교자가 AI를 활용하면 성경적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로 인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에게 많은 장벽들이 사라지게 됐다”며 성경적 콘텐츠의 제작과 배포가 쉬워진 점에 주목했다. 이어 “인공지능으로 인해 복음의 확장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목사는 미전도종족을 위한 맞춤형 선교전략과 평신도 중심의 전문인 선교, 시니어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 세대를 깨우고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컬(Global+Local) 선교전략에도 AI를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목회현장이 계속 변화하더라도 복음 증거의 사명은 이어져야 한다며,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사역자들의 준비를 당부했다.

권태진 목사는 ‘건강한 교회와 섬김 사역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건강한 교회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게 한다”고 했다. 성도는 섬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는 이웃과 함께 살아갈 책임을 감당한다는 설명이었다.

권 목사는 48년간 군포제일교회를 목회하며 지역사회를 섬긴 경험을 나눴다. 1978년 천막교회로 출발한 군포제일교회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사회복지법인 성민원을 설립하고, 28년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전문 복지 사역을 이어왔다.

그는 지속적인 섬김을 위해 프로그램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과 교회의 사명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씀과 기도로 방향을 정하고 말씀 사역과 섬김 사역의 협력을 유지하며, 봉사자와 종사자를 돌봐야 한다고 했다. 지역의 필요와 교회 형편에 맞게 시작하고 경험을 나누는 일도 제안했다.

권 목사는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며 “건강한 교회는 말씀으로 사람을 낳고, 사랑으로 품으며, 그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섬기도록 세운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정보센타 2027 목회 계획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선종욱 목사는 ‘효율적 목회를 위한 AI 활용 사례’를 주제로 실습 중심의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용자에게 있다”며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선 목사는 AI를 목회자의 비서로 활용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다양한 앱과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습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평생공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활용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다만 AI 활용 능력이 목회자의 신앙이나 인격을 대신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신앙과 인격은 개인의 지속적인 책임”이라며 경건생활을 지키고 윤리성과 책임감을 기르는 동시에, 목회의 보조 도구인 AI를 다루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항안 목사는 2027년 목회 계획을 위한 실천 방안을 소개했다. 송구영신예배와 신년 교회 표어 선정, 사순절·성주간 프로그램, 순교현장 관련 운동, 새벽기도회 활성화, 예배 후 기도운동, 새 입적자를 위한 가족 청문회, 일만 번 주기도 드리기 운동 등을 제안했다.

김진영 기자

